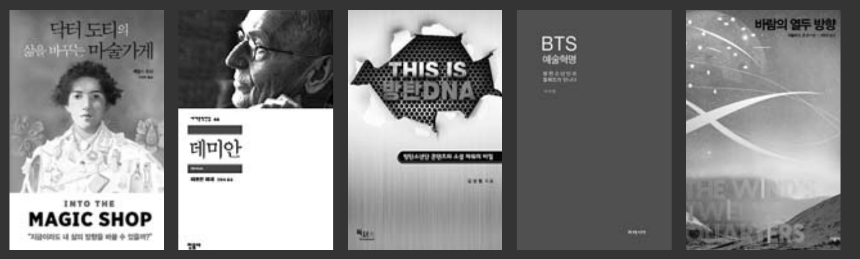
방탄소년단, 출판계에도 '선한 영향력'

'닥터 도티…' '데미안' 등 언급된 도서 '팬덤셀러'로 저자는 "BTS 땡큐" 트위터 인기 분석 책도 잇단 출간



빌보드 차트 정상까지 석권한 방탄소년단이 출판계도 흔들고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언급한 책과 앨범 제작 과정에서 모티브를 얻었던 책,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와 정체성 등을 분석한 책들도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책들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출판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이 밴드인 BTS의 새 앨범의 모티브가 됐던 책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가 발간 2년 만에 온라인서점 알라딘 주간 판매 1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출간된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연말 한 음악 시상식에서 책과 관련한 티저를 노출한 이후 1주일간의 판매가 이전 주보다 5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영화화 이후 책이 팔리는 '스크린셀러'나 드라마나 방송에서 노출돼 화제가 되는 '미디어셀러'와는 다른 양상이다. 무엇보다 팬들의 독서와 공유가 바탕이 된 '팬덤셀러'(Fandomseller)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는 꿈 없는 소년에서 신경의학자가 된 저자(스탠퍼드대 교수)의 이야기다. 책은 뇌와 심장, 두 기관의 잠재력을 동시에 활용할 때 특별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다.

방탄소년단은 2016년 정규 2집 '윙스'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소설로, 불안한 청춘의 내면을 형상화한 작품은 시대를 초월에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 네버 워크 얼론' 앨범에 수록된 '봄날' 뮤직비디오에 판타지 작가인 어슐러 르 귄의 단편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서 모티브로 차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아울러 관련 책들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날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의 저자는 트위터에 "내 책에서 영감을 얻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렇다면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는 왜 이들에게 열광할까?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분석한 책들도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THIS IS 방탄 DNA'는 방탄소년단의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활동이 무엇이 어떻게 특별했는지 분석한다. 저자는 방탄소년단 콘텐츠 전체를 관통하면서 대중을 매료시킨 3대 핵심 DNA로 '흔놈', '꿈', '성장'을 제시한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의 '리좀'(관계·연대)개념으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책도 발간됐다. 'BTS 예술혁명'은 BTS와 그들의 팬덤 아미(ARMY)가 연대와 실천을 통해 일으키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 미학적 현상을 '방탄현상'이라 명명한다. 여기에서 아미는 BTS에 지지를 보내는 친구, 세계로 진출시키는 군대, 나아가 예술을 완성해나가는 동반자다.

'BTS를 철학하다'는 단순히 인기 요인을 분석하지 않고 인문학적 관점에서 메시지와 청춘들이 만난 감성적 접점을 사유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읽기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 익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지역 미술 아카이브 구축 시급하다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국공립미술관들은 그 나름의 목적과 지역성에 근간하여 미술문화의 보존과 연구를 위한 작품 수집을 추진한다.

우리지역의 예를 들면 광주시립미술관은 개관이후 지난 25년간 국내외 미술계 및 지역 미술계를 통하여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는 작품들과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소장품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수집하여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의 미술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소장품활용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아름답고 소중한 작품들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미술관 예산을 통한 일반구입과 작가 및 미술품 소장자들의 기증을 통하여 수집한다.

예를 들어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4789점 중 2536점에 달하는 방대한 작품은 하정웅명예관장의 기증작품으로 이는 국내외 모든 미술관들에 모범적인 기증문화의 아름다운 사례이다. 한편 미술관은 매년 첫 번째 전시로 지난해 수집하였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하며 수집한 작품목록이 수록된 도록을 함께 발간한다.

우리고장 광주는 멋과 정신이 살아있는 전통예향이다. 예로부터 수준 높은 문화 활동이 그 어느 곳보다 활발하였고 특히 미술 분야는 지역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었다. 근현대사를 거치며 민주, 인권,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갖는 아시아의 대표적 문화중심도시로서 재도약하는 전환점에 위치하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 전라도 정도천년의 대표도시이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사회적 변혁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수집하여, 새로운 미래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미술관 소장품 수집은 지역공립미술관의 핵심 사업이다.

미술관은 이를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국내외 작품을 평면, 입체, 미디어아트 등 모든 장르를 조화롭게 수집하고자 노력하며, 청년, 중년, 원로 및 작고작가의 작품을 균형감 있게 배려하여 추진하고 있다. 타 미술관과 비교되는 사항으로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는 현실참여계열의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과 지역미술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작가들의 작품은 2015년부터 공모제를 통하여 구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의 대표적 문화도시에 위치한 미술관들에 비하면 아직은 짧은 역사와 경험을 지닌 국내미술관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민되는 또 하나의 사업은 지역미술의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아카이브사업이다.

현재까지도 화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원로작가님들과 작고작가님들의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아카이브구축은 지역미술사를 정립하는 기본 자료를 구성하는 필수사업이다.

이는 시간과 예산의 투자에 비하여 시각적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순간적으로 훼손되고 분실되어 다시는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국내 국공립미술관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국내미술계의 1세대작가님들이 연로하고 현업에서 은퇴를 하는 상황으로 상황이 매우 급박하기만 하다.

다행인 것은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공립미술관중 가장 먼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3년 전부터 호남미술아카이브를 전시와 수집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미술계에서도 다양한 협조를 공조하여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8일 방울소리공연장서 공연

소프라노 백정빈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가 8일 오후 7시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110회 가곡 부르기 공연을 연다.

이달의 배우는 노래는 이정님 시에 김성희가 곡을 붙인 '내 사랑 망초여'다. 주제는 '난 어찌하라고'다.

다 함께 부르는 추억의 노래로는 해마다 6월이 되면 누구나 흥얼거려보는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를 시작으로 '장안사',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순국 선열들을 기리며 부르는 '비목'을 준비했다. 정다운 노래로는 '아무도 모르라고'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노래한 '불타는 강대나무'를 부른다.

사랑의 노래로는 국민가곡인 '황혼의 노래'와 우리나라 명산을 노래한 '산아 산아 한라산아'를 무대에 올린다.

꿈나무 연주 무대에는 임서령(문산초 5), 윤지환(문정초 5)이 출연하며 회원연주로는 고광덕, 김윤신, 박송미, 임동윤, 서혜란, 조성식, 김우진, 문명수, 김희숙, 박진영 씨 등이 참여한다. 또 꿈오라기 여성중창단이 특별출연한다.

시낭송은 낭송가 서애숙 시인이 송수권의 '여승'을 낭송하며 평화방송 피아트 합창단 지휘자이자 소프라노로 활동중인 백정빈이 '님이 오시는지'와 '아리아리랑'을 연주한다.

문의 010-2694-4592, 010-2665-232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유·스퀘어 실버 콘서트' 참가자 모집

주니어 콘서트, 시니어 콘서트 등 연령별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해 온 유·스퀘어가 이번에는 실버콘서트를 마련했다.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8월 30일에 열릴 '유·스퀘어 실버 콘서트'에 출연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실버 콘서트는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의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새로운 콘서트 시리즈다.

클래식과(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국악 부문에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버 콘서트 담당자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실버 세대의 문화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해진 만큼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만 65세 이상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62-360-8432. /전은재 기자 ej6621@